

식탁 위 꺼내놓은 그때, 그 시절 기억들

ACC 연극 '파인 다이닝' 리뷰

아버지 노동연대기 바탕으로
세 가족의 욕망·이야기 담아
모두의 치열했던 삶을 보듬다



지난달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에서 '파인 다이닝' 연극이 펼쳐졌다. 사진은 커튼콜 무대에서 인사하는 배우들의 모습.

“돈가스, 돈까스에 포트커렛, 달걀물 입힌 돼지고기에 빵가루를 묻혀서 빠삭하게 튀겨내는 음식, 경양식 돈가스~♪”

공연은 극장 입장과 동시에 시작한다. 자리에 착석한 관객 앞으로 배우들이 줄지어 서 ‘돈가스 송’을 들려준다. 안무를 따라 배우며 한바탕 고감이 이뤄지니 본 무대 전부터 공연에 흥뻑 빠져들게 된다.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에서 펼쳐진 연극 ‘파인 다이닝’은 공연 내내 관객들에게 추억 속 음식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다.

공연에는 7명 배우가 출연한다. 돈가스 고기, 사라다, 브라운 소스 등 돈가스 요리를 의인화한 역할은 4명의 배우가 맡았다. 일인다역을 맡은 이들은 음식이 조리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실감나는 장면을 선사했다.

지난해 아버지 영화를 중심으로 낭독극이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공연에선 어머니 경연과 딸 미담의 이야기까지 꺼낸다.

아버지 곁에서 각자 치열한 삶을 살아낸 어머니와 딸, 세 사람의 인생과 그 속에 숨겨진 욕망이 여실히 드러난다.

젊은 시절 무궁무진한 포부를 품었지만 가사노동과 내조로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경연, 직장

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며 연기자로서의 험난한 길을 이어나가는 미담까지, 가족 모두에게 각자의 꿈과 인생이 있었음을 연극은 보여준다.

또 연극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등장, 카스테라 대란, 닭갈비집 유행 등 시대의 흐름을 다루며 세월을 거쳐 사라지고 밀려난 여러 음식들을 다시금 조명하기도 한다.

가볍지만 양은 주체되지 않 배우들의 재치있는 포인트가 극 곳곳에서 발견되며 한바탕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극 중반에는 영화, 경연, 미담 세 가족의 노동 레이스가 시작된다.

특히 아버지 역 성노식 배우는 동그란 원형 무대를 레인 삼아 돌고 또 돌고 씁쓸이 달렸다. 어딘가를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지만 불안감으로 멈출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전력을 다해 질주하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다는 딸의 독백은 성 배우의 질주와 어우러져 관객석에 와 닿았다.

극장의 무대구조를 살린 연출과 배우들의 동선, 공간활용도 돋보였다. 특히 야외도어가 열리며 진짜 아버지 김영학 씨가 공연장 바깥에서 안으로 등장하는 씬은 절절한 감동을 자아냈다.

돈가스 요리와 함께 등장한 진짜 아버지 김영학 씨가 아버지 역에 분한 성 씨와 마주 앉아 돈가스를 썰어 먹는 장면은 우리 모두의 치열했던 삶 그리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듯 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은 아버지 김영학표 돈가스를 직접 맛보며 연극의 여운을 만끽했다.

좋은 식사를 의미하는 파인 다이닝. 공연은 우리 삶 속 식탁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질문한다. 그리고 이 시대 모든 노동에 대해 애도하며, 현재의 위치에서 각자의 기억 속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지난 한 해를 꼬박 채워 완성해낸 연극 ‘파인 다이닝’이 앞으로도 꾸준히 무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본다. /최명진 기자

인/티/뷰 '파인 다이닝' 연출가 김미란·배우 성노식



배우 성노식(왼쪽)과 연출가 김미란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갈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현대사회와 아버지 사이의 속도 차는 순간 급격히 차이 나는 걸 목격했어요. 이번 공연은 열심히 살아왔던,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앞으로도 잘 살아갈 모든 이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난달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로비에서 만난 김미란 연출가는 공연 ‘파인 다이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파인 다이닝”은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요리를 뜻한다. 공연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관객들에게 마치 잘 차려진 연극 한 상을 대접하고 싶다는 게 연출가의 바람이다.

김 연출가는 “식탁과 기억”이라는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30년 가까이 곁에서 지켜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던 돈가스가 자연스레 떠올랐다며 “제 식탁은 아버지의 화려했던 시절과 씁쓸함, 삶과 기억들이 한데 어우러진 개념으로 치환된다. 이것들은 공연에서 중요한 소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범공연에 이어 본 공연

에도 참여하는 아버지 역 배우 성노식 씨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질 욕망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성 씨는 “시범공연에선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이번에는 어머니와 딸의 서사가 함께 다뤄진다. 세 가족이 처한 상황과 갈등,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라며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매력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출가는 “남성을 상징하는 아버지, 여성인 어머니와 딸의 노동과 삶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관객들 스스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이 세상의 모든 노동이 존중 받았으면 좋겠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각자 떠올려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명진 기자

고향 속 내면 풍경... ‘어머니의 시간’

김성민 사진전, 무등현대미술관

어릴 적 시간과 기억이 머무는 청산도의 풍광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영원한 시간을 담아낸 사진전이 열린다.

오는 2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성민 사진전 ‘어머니의 시간’이다.

슬로시티 청산도의 돌담, 어릴 적 풍경, 어머니에 대한 기억 등은 그의 사진 속 주된 소재다.

김 사진가의 작업은 사회적 기억이자 그 사회의 정체성이다. 그가 표현해낸 시각적 대화는 미학적, 문학적, 사회적 기억, 사회적 정체성 등의 개념으로 채워져 있다.

작품 속 그의 관습적 시각은 자연의 흐름을 택한다. 작품 내면에 감춰진 단순성과 덧없음은 그의 기억과 열린 공간에 익숙해 있다.

어머니의 삶이 담긴 공간은 어릴 적 기억을 품은 한 장면이자 고향의 풍경이다.

김 사진가는 “고향의 시간은 느리고 평온하게 흐르지만, 무너져가는 돌담 속 어머니의 씩씩함과 세월이 질게 묻어있다”며 “사진 작업을 통해 삶의 공간을 시각적 수단으로 해체하고 조립해 모든 사람과 함께 감동할 수 있는 삶의 새로운 정의를 해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행준 미학박사는 “김성민의 사진은 관객의 시선을 확 트인 공간으로 도파할 수 없게 닫힌 배경으로



김성민 '어머니의시간#11'

막고 삶의 소품이 배경과 어우러지는 질서에 주목하게 한다”며 “막힌 배경과 경직된 자세들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인물과 소품들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사진의 속명인 평면을 인정한 채 인물이 겪은 오랜 시간을 담아내고 있다”고 평했다. /최명진 기자

거울못 모형배 창작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국립광주과학관, 12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품을 통한 상상력·창의력 증진을 위해 ‘제5회 거울못 모형배 창작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본선은 9월7-8일 1박 2일 캠프 형태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다.

과학관은 이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부와 중등부 각각 30팀씩 선발하며 초등부는 4학년 이상부터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학생 2인 1팀과 지도교사 1인 구성으로 출전할 수 있다.

대회는 온라인 예선대회와 광주과학관에서 제공하는 모터와 기어, 송수신기 등을 활용해 참가자가 준비한 재료로 모형배를 제작, 과학관 거울못을 횡단하는 본선대회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